

프랑스 사노피, 세계 2위 원료의약품 기업 분사·상장

- 인도는 해외 의존도 90% 이상 원료의약품 53개 중 35개에 대한 자국 내 생산 개시 -
- 주요국, 최대 원료의약품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강화 계속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프랑스 Sanofi, 원료의약품 사업부 분사해 다음달 상장^{1,2}

- 2022년 4월 1일, 프랑스 사노피는 원료의약품 사업부 분사를 마무리하고 5월 6일 프랑스의 파리증권거래소(Euronext Paris)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EUROAPI는 저분자의약품 API(원료의약품)에서는 세계 최대 제조기업이자 API 매출 기준으로는 스위스 론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 될 예정임.
- 사노피는 지난해 1월, 새로 분사되는 기업의 이름을 EUROAPI로 짓고, API 최첨단 산업역량과 기술로 “made in Europe”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 밝힘.
- EUROAPI에는 3,350명이 근무하며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영국에 6개의 생산 시설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약 200개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2021년 8억 9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매출 10억 유로 이상을 목표로 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의약품 공급이 불안해 지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대외 의약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중국 및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EUROAPI는 유럽에 기반을 둔 API 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해외 의존도 높은 원료의약품 53개 중 35개에 대한 자국내 생산 개시^{3,4}

-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인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과 한계투자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최대 6년간 지급하고 있음. 즉, PLI 제도는 인도 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켜 인도의 제조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인도 정부는 벌크의약품(Bulk Drugs), 의료기기(Medical Devices), 의약품(Pharmaceuticals) 등 3개의 PLI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형, 바이오의약품, API, 시작 물질, 중간체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2022년 3월 29일,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53개의 원료의약품(API) 중 35개에 대해 자국내 32개 생산시설에서 생산을 개시했다고 발표함.
- 또한, 벌크의약품의 경우 인도 정부는 33개 의약품에 대해 239개 신청서를 받았으며 2022년 3월 29일 현재까지 33개사 49개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힘.
- 중국은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수출국가로 많은 인도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인도는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자국내 제조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

1. Sanofi's CDMO spinoff set for next month as new group targets 2022 revenues of €1B, 2022.4.1
2. Sanofi forges ahead with active ingredients spin-off-sources, Reuters, 2020.7.17
3. Local manufacturing of 35 APIs started after PLI Scheme, Economic Times, 2022.3.29
4. 49 applications approved under PLI scheme for bulk drugs, Economic Times, 2022.3.30